

### 목어

#### 향기내는 물그릇

우물을 가진 소녀가 있었다. 우물에서는 맑디맑아서 푸른빛을 띠는 맛있는 샘물이 솟아 나왔다. 우물의 소유자인 소녀는 물값을 따로 정하지 않고 손님들이 주는 대로 받았다.

우물은 사막의 끝에 있어서 사막길을 걸어 온 나그네나 물맛에 향수가 있는 사람, 소녀의 친절함 마음씨에 감동을 받은 이들로 늘 붐볐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샘물은 더 솟아 나왔고, 한편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았다.

어느 날 이 우물가에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행색의 청년이 나타나 물을 청했다. 소녀는 돈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기쁜 얼굴로 청년에게 물을 떠 주었다. 맛있게 물을 마신 청년은 감사의 표시로 가지고 다니던 향수병을 꺼내 물그릇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놀랍게도 그 이후 물의 맛이 더 좋고 은은한 향내까지 들었다.

소녀는 계속 우물가를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의 왕자가 신부감을 구하려 전국을 다니다 우물이 있는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는 소문이 들렸다. 우물이 있는 땅을 관리하는 태수에게 딸이 있었는데, 태수는 그 딸을 왕자의 눈에 들게 하려고 소녀를 쫓아버리고 대신 딸이 우물가를 지키게 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운 그녀는 거지처럼 한 왕자가 나타나자 물을 주기는커녕 욕을 하며 쫓아버렸다. 그러나 왕자의 웃음과 같이 입과 마추를 물고 나타나자 황금 그릇에 물을 떠서 바쳤다. 하지만 왕자는 원래의 그릇으로 마시고 싶다는 태수 딸이 준 황금그릇을 밀었다.

할 수 없이 샘을 지키던 소녀를 찾아낸 태수는 못가에 서 있던 소녀를 못 속에 빠뜨리고 그릇을 빼앗아 자기 딸을 시켜 물을 올렸다. 기쁘게 물을 마신 왕자가 주인을 찾으니 물에 빠졌다고 알려 주었다. 놀란 왕자가 못가로 달려갔으나 소녀는 이미 죽고 그 자리에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 그 꽃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그 꽃을 연꽃(蓮花:Lotus)이라 불렀다.

이 이야기는 아라비아의 전설이다. 수행자인 스님을 향기나게 하는 물그릇은 무엇일까?

법현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 2월 승가대 '김포로' ... 초파일 이전 '사면'

### 조계종 새해 청사진

2월 중앙승가대 이전 불사 완료, 부처님 오신날 이전 사면 실시, 6월 불교문화회관 착공,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1일 밝힌 새해 사업 계획에 따른 올해 상반기 조계종의 주요 일정이다. 대규모 건축불사를 통해 종도들의 의지를 모으고, 화합 종단을 구현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제시한 올해의 청사진이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중앙기종책 개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대스님은 이날 "불교문화회관 건립 불사를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포함해 주요 중무방향을 사면·복권 추진, 종단 정체성 확립 등 6개 항목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 ● 중앙승가대 이전 완료

2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3월부터 새학기 수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포학사는 기존공검사를 받아 새학기 수업에는 차질이 없다.

그러나 매년 3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마련을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교육원과 기획실, 재무부, 학교당국이 김포학사 운영과 개원학사 활용 방안 마련, 중앙승가대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 ● 사면·복권 추진

정대스님은 99년 11월 취임 이후 줄곧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로 사면·복권의 실시를 강조해 왔다. 이날도 "현재 중앙종회에 계류중인 중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면·복권 조치를 추진해 종단 화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장 추대는 총림의 추천과 중앙종회의 동의로 이뤄지지만, 정대스님은 3월 종회에서 월하스님을 통도사 방장으로 추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화합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3월 종회에서 총림이 개정되면,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사면·복권을 실시한다는 것이 정대스님의 계획이다. 정화개혁회의에서 제기한 소송이 2월이면 모두 일단락되므로 중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한다는 것이다.

### 불교문화회관 6월 착공 어떻게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1일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불교문화회관 건립 불사를 올해 6월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철차와 일정,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100억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 문제이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 37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회관 내에 박물관을 입주시키는 방안도 재정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 추진위원회는 집행부와 중앙종

회, 전문가들로 3월 중 구성된다. 실무팀도 꾸려진다. 곧바로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고 6월 중 공사를 시작, 2002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 있다.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불교문화회관은 총무원을 비롯한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가입주할 사무동(棟)과 문화동 등 2개의 건물로 구성된다. 문화동에는 불교중앙박물관과 각종 기관·단체의 사무실, 대령 회의실, 공연·전시 공간이 들어선다는 믿그림을 그려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동

## 총무원장 신년 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1일 포교원장 정선스님과 부·실장 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새해 중앙종무원장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론 수렴을 통해 종책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해 종단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원로와 중진, 본사주지스님을 비롯 재가자도 포함한다.

#### ● 정체성 확립·교육 활성화

총무원은 올해가 조계종의 중흥조인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 일제하 조선불교 조계종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뜻깊은 해를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병행하여 사부대중 결집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불교 조계종 창립 60주년 학술대회 △전통 수행체계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 △(조계종당사-근현대) 간행 △태고보우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종도 도의국사 선당 사업 △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단위 사업으로 제시했다.

도 수행 중심의 승가상을 확립하기 위해 행자교육 교재를 개선하고 상설행자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교육도 강화한다. 신도 기본교육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교육교재도 발간한다. 사찰 사무장도 총무원의 교육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 남북불교교류 확대

민중공동체추진본부를 통해 통일 역량을 결집

하고 통일에 대비한 중앙기종책을 수립한다. 남북불교교류와 북한불교문화재 복원불사를 위한 통일기금도 조성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북한 사찰에 남한의 불자들이 보내는 등 달기, 북한사찰과 자매결연도 추진한다.

총무원은 또 "환경과 생명 운동을 확대할 것이며, 인권과 복지, 국립공원제도 개선, 성보보존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찰 오수정화 시설 설치 및 친환경 사찰만들기 중흥대책 마련 △본말사 환경교육 실시 △문화재 관리안 내 자료집 발간 △성보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를 맞아 불교문화와 사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연등축제의 확대 및 전통등 보급 △사찰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 불교정보화 추진

사찰총무원장 프로그램인 '가람지기'를 확대 보급하고 인터넷 포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불교계 정보화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한다. 본말사 총무원장 체제화를 위해 총무행정을 표준화하고 업무편람을 제정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 "재정 마련돼 있다"

### 3월중 추진위 구성 ... 내년말 완공

인사동-조계사-경복궁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정대스님은 이날 불교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관을 짓겠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 올해의 최우선 사업"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이며 "대각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해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지난 70년대에 현 청사를 건립한 이후 종단의 발전에 비하여 도량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며, 더구나 청사는 수차례의 종단 내홍을 거치며 훼손되어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 태고종을 어떤 사업 펼치나

## 종무행정 투명화 공부풍토 강화

태고종(총무원장 종언)은 5일 열린 2001년 종단 사무식에서 새해 종무행정 지표를 △공부하는 풍토 조성 △부장 중심제를 통한 투명한 종무행정 추진 △대승교화종단 위상 제고 △재정 안정 등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종무행정의 전산화를 마무리하고, 조직정비를 통한 종단의 응집력을 강화, 종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선양함과 함께 종도들의 종단공헌을 위해 승려 및 교인의 연수교육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부하는 풍토조성과 관련 동방불교대학이 정식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선암사 강원을 비롯한 교육기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종도들의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 추진한다.

종단 기간조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부장중심제를 통해 종무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 중장기 발전안 수립, 전구비구회 전국교인협의회 태고부인회 전국신도회 한국불교청년회 등 신하조직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

### 태고사 성역화 복지사업 활성화 재정안정 역할

비를 꾸준히 해나간다. 대승교화종단 위상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종조인 태고보우스님의 탄신 7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걸맞게 종조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는 사상강연회, 논문집 발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한다. 이와 더불어 보우스님의 부도날, 비가 모셔져 있는 북한산 태고사를 명실상부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성역화 불사를 본격 시작한다. 한국불교의 정확한 법사사를 밝히는 세미나 개최와 태고종 종전 편찬사업도 착수한다.

4월에는 태고총림 선암사 장경각에 봉안돼 있는 경판정 성보박물관 보강작에 이전하는 경판정 대불사를 종단차원에서 병행하며 성보박물관을 개관, 선원과 강원을 활성화하는 등 선암사를 명실상부한 총림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통일불교정책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불교교류를 활성화해 통일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지난해 계획했던 연기한 구족계 수계산림을 21년만에 부활해 6월중 실시한다. 또한 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설립 등 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난해 개설한 종단홈페이지 태고넷의 콘텐츠를 강화해 인터넷 포교에도 역점을 둔다. 종단소속 각 사찰에 홈페이지 개설을 독려, 종단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종단 네트워크사업에 주력하며, 각종 자료의 체계분류 및 전산화를 가속화시킨다.

특히 태고종의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재정안정을 위해 먼저 종단에 대한 종도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종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고, 공유사찰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책정하는 등 다각도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n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광삼 등록번호: 다-3379  
 논설고문: 고은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김규석 편집: 신문홍(광명) 및 고인정 (요즘)을 운영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nia.com](http://www.buddhania.com)  
 불교쇼핑: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8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30년 축적된 어린이·청소년·일반신도 포교 자료집

전법도량 시범사찰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장 성일 스님'의 생생한 포교현장 체험 자료집들. 한 가지 수련과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하여 기획하고, 연구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장엄스럽고 상큼하게 행사를 잘 회향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책들은 행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과 환희심이 물결치게 해줄 좋은 포교 지침서입니다.



·현대불교기도 영험록 기도는 뭘 때까지 하면 된다 - 근간  
신흥사를 찾은 전국의 수천 수만의 불자들이 기도 수행 공덕으로 일군 불사의한 영험 모음집

#### 초심간

청소년 포교 지침서

값 10,000원/440면/신국판

한 수인의 참회 편지를 보고 청소년 수련원 문을 열고 청소년 교화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만 연인이 됐다. 그 오랜 세월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정말 열심히 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을 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워 갔고, 그들이 벌써 부모가 되어 그들 자녀를 이 수련원에 보내고 있다. 이 책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 포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과 생애와 가르침을 미래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이루어진 실제 진행 자료들이다.

- 머리말 중에서

#### 청소년 포교 지침서

값 6,000원/346면/신국판

대중교회, 특히 어린이 포교에 종신적 힘을 기울여온 경기도 화성 신흥사 성일 스님 수련원 원장 성일 스님이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험한 사제들을 모아 책으로 펴낸 것 그 동안 어린이 포교활동을 하면서 쓰셨던 글들만 어린이 포교의 효과적인 방안 그리고 어린이 불교지도 방법과 프로그램, 자료와 같이도, 생일, 액화 등을 관련 사진들과 함께 편집, 실제 진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이 법회를 처음 익히는 스님이나 지도원,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고 있다.

#### 신도포교지침서

값 8,500원/406면/신국판

이 책은 포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불행 종도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학부와 인고 수많은 날 수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착안하여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였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상권은 모든 사찰들이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등행사 등으로 행사 안배으로부터 행사 진행, 설법, 문안까지 자세하게 참고가 되도록 수록, 신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이다.

####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

값 6,000원/346면/신국판

대중교회, 특히 어린이 포교에 종신적 힘을 기울여온 경기도 화성 신흥사 성일 스님 수련원 원장 성일 스님이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험한 사제들을 모아 책으로 펴낸 것 그 동안 어린이 포교활동을 하면서 쓰셨던 글들만 어린이 포교의 효과적인 방안 그리고 어린이 불교지도 방법과 프로그램, 자료와 같이도, 생일, 액화 등을 관련 사진들과 함께 편집, 실제 진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이 법회를 처음 익히는 스님이나 지도원,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고 있다.

#### 신도포교지침서 2 연중행사편

값 8,500원/406면/신국판

이 책은 포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불행 종도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학부와 인고 수많은 날 수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착안하여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였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상권은 모든 사찰들이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등행사 등으로 행사 안배으로부터 행사 진행, 설법, 문안까지 자세하게 참고가 되도록 수록, 신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이다.

#### 신도포교지침서 2 특별행사편

값 9,500원/450면/신국판

사찰의 특별한 불사들은 불사 자체가 많지 않고 그 때를 맞이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고 불행하는 실로 막대하다. 이 책은 신도스님 수련원 성일 스님이 특별행사 때에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고산 관습에 따라서 지도해주시는 대로 행한 것들 정리한 자료들이다. 상권은 전신사립 합자식 및 중직 불사, 가사불사, 보살계 수계 불사, 사신, 학원식 등 갖가지 특별한 행사에 안내 문으로부터 행사 진행, 설법, 문안까지 자세하게 참고가 되도록 수록하였다.